

#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구레다움’ 만들어낼 것”

민선 8기 3년

김순호 구례군수

전라남도 구례군이 정주기반 확대 및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통해 ‘체류형 관광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군민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의미 있는 전환을 만들어낸 시간이었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해 1분기 등록 인구의 18.4배에 달하는 생활인구 44만9000명을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1위에 올랐다. 단순 방문객이 아닌 실제 구례에 ‘머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그동안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체류형 관광 강화, 농촌유학 프로그램 확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등 유기적으로 지원책을 가동해 왔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2311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구 순전입이 24명 증가하기도 했다.

구례군은 ‘기본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담 TF를 구성, 출산·교육·의료·교통 등 생활기반 전반에 걸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비와 신생아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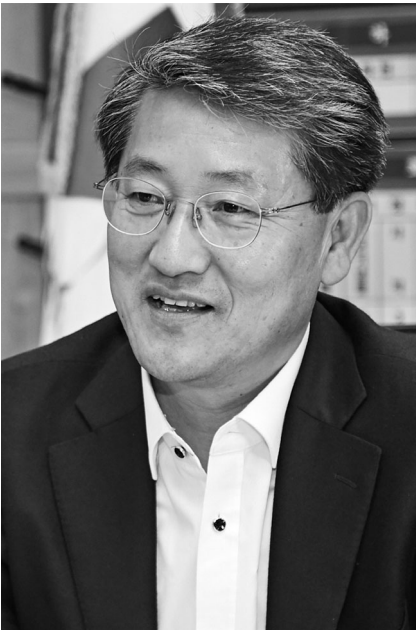
생활·문화·관광 균형 발전 실현  
관광객 646만명 유치, 정착률 ↑

비, 타지역 대학생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입학준비금, 수능방송 수강료, 통학 에듀택시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와 교통 분야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카카오톡모빌리티 공유자전거 도입(전국 군 단위 최초) 등 지역 맞춤형 혁신을 실현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공헌 수당, 출산기념 씨앗통장 등 신규 시책을 정부와 협의해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군은 최근 연간 관광객 646만명을 돌파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섬진강 스카이라이프, 지리산호수공원 MTB코스 등 레저 기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서시천 유채꽃길, 지리산정원 수국길 등 계절꽃 테마 콘텐츠 확대, 구례5일 시장, 우리밀빵거리, 백련전 생태로드 등



김순호 구례군수.

도심형 관광 명소 개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례군은 오산 케이ابل가 설치, 야간 미디어아트 콘텐츠 확대 등으로 관광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케이션 관광스데이’ 사업과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등 광역 관광 연계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성과가 이어졌

다. 1조 4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2000억원 규모의 섬진강 관광레저 단지 조성, ‘산에마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유치를 비롯해 구례읍·섬진강·지리산온천·화엄사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칠의대대 부지에는 전국 최초로 ‘시티골프장’을 포함한 섬진강 그린케이션 복합단지 조성도 계획 중이다.

‘머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주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유학타운 1단지 입주, 2단지 2025년 준공,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운영, 정착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한 달 살아보기 ‘촌스데이 in 구례’, 청년 통합기숙사 ‘로그인하우스’, 청년 임대주택 ‘청년하우스’ 조성 등으로 실제 구례 농촌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67명, 대기자는 100명을 넘는 등 ‘교육 중심 정주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는 구례가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생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구레다운 도시를 끝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

두원면 북구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고흥군, 노후 경로당 탈바꿈

전라남도 고흥군이 2일 두원면 북구경로당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리모델링을 마친 경로당 내부를 둘러보며 개선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4억원(국비 2억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후화된 건물의 단열 성능과 냉난방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두원면 북구경로당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효율 설비와 단열재 교체, 환기 시스템 개선 등 진행해 냉난방 성능은 물론, 실내 공기질 개선까지 이뤄냈다.

고흥=심정우 기자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광양시, 전남 중·고생 50명 모집

장흥군,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  
파크골프장 5곳과 천관산 등산로

전라남도 장흥군보건소는 관내 파크골프장 5곳과 천관산 등산로 효자송 앞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6대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천관산, 제암산, 수인산, 가지산, 삼비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와 공설공원묘지, 유치자연휴양림, 천문과학관, 우드랜드,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등 12대에 더해 6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해충기피제는 얼굴과 목을 제외한 겉옷이나 돗자리에 가볍게 뿌리면 약 4시간 동안 해충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 뿌리기, 긴팔·긴바지·모자 착용, 풀밭 위 눕지 않기,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화양면, ‘직거래 장터’ 운영  
5일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일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이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8동 인근 쉼터에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복장터’를 운영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화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농업인이 재배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운영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화양면에서 출하된 옥수수와 단호박, 블루베리, 양파, 마늘 등이 판매되며 쉼터 옥수수, 콩물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달 28일 보성군 읍내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제20회 읍내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들이 풍선터트리기 등 체육 행사를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제20회 읍내면민의 날’ 성료

전라남도 보성군 읍내면은 최근 ‘제20회 읍내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읍내면민의 날은 읍내면민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군의원, 지역주민 및 출향향우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밤골 농악단, 라인댄스, 군립국악단의 흥겨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장수상 수여, 지역 공헌자 감사패 전달, 학생 장학금 수여 등이 진행되며 효와 상생의 지역 가치를 되새겼다.

이후에는 풍선터트리기, 신발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

했다.

문원식 읍내면민회장은 “뜻깊은 행사에 많은 면민과 향우들이 참여해 고향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읍내면민의 날이 20회를 맞아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읍내면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여수시, 11일 캔들라이트·드론라이트쇼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서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11일 오후 8시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와 드론라이트쇼를 다시 선보인다.

시는 지난달 15일 ‘2025 MyK FESTA in 여수’의 연계 행사로 캔들라이트 콘서트와 드론라이트쇼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취소한 바 있다.

공연은 현악 4중주팀 ‘리수스콰르텟’이 출연해 비발디 ‘사계-여름’,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노탕힐·미션 OST, 김광석의 대표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클래식 앙상블로 선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공중 점화 기능이 탑재된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대규모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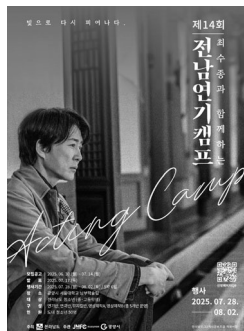
라이트쇼’가 장식한다.

여수시 관광 명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밤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한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에 착석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여수의 밤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와 (사)전남영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4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가 오는 28일부터 8월2일

까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열린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연기캠프는 영상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해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연기, 영상 제작,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박6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기반, 제작반 A·B, 연극반, 뮤지컬반 총 5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는다. 연기반은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단편영화 촬영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제작반은 카메라 촬영, 편집, 사운드 등 실제 영화 제작 전반을 배운다. 연극반과 뮤지컬반은 공연 준비와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전공 강사진과 멘토의 밀착 지도 아래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활지도 강사, 영상탐, 운영진 등 약 50명이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배우 최수종이 캠프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진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월1일에는 참가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리고, 8월2일 수료식을 끝으로 캠프가 마무리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50명의 명단은 17일 (사)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